

운동주의 시 「별헤는 밤」의 비유구조

유재천
(경상대학교)

1. 이론적 근거들

최근의 시학이론들은 비유가 시의 기본 구조원리라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야콥슨(Roman Jakobson 1989, 61)은 “시적 기능은 등가의 원리를 선택의 축에서 결합의 축으로 투사한다”라고 하여 은유가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시의 근본 구조원리임을 밝히고 있다(야콥슨 1989, 61). 소쉬르에 의하면 담화는 등가관계에 있는 것들의 집합인 계열체 내에서 단어를 선택하여 그것들을 앞뒤로(시간적, 직선적) 결합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 야콥슨은 소쉬르가 제시한 이러한 담화 형성 원리와 달리 시는 계열체 내의 성분들 사이의 관계인 등가의 원리를 인접성의 원리를 따르는 결합축에 덧붙이기 때문에 일상언어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낯선 언어가 되며 거기서 시적 기능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밥을 먹는다’는 문장을 만들 때 우리는 철수와 등가관계에 있는 계열체 내에서 철수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철수는 영이, 바둑이, 고양이 등 그 위치에 올 수 있는 것들의 집합 내에서 선택되며 철수는 그것들과의 관계에 의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철수는 영이가 아니고 바둑이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철수이다. 마찬가지로 ‘밥’ 그리고 ‘먹는다’라는 단어는 그 위치에 올 수 있는 것들의 집합 내에서 선택된다. 문장을 만들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선택된 단어들을 앞뒤로 나열함으로써 문장을 만들게 된다. 계열체 내의 성분들 사이의 관계는 등가의 원리가 적용되며 통합체, 즉 선택된 것들 사이에는 인접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인접성의 원리는 차이성의 원리이다. 이웃해있는 단어들 사이에 유사성이 크면 일상언어로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시는 그것을 무시하고 등가적인 것들을 서로 결합함으로써 일상언어의 규칙을 위반하고 낯설게 한다.

아치볼드 A. 힐(Archibald A. Hill)과 리파테르(Michael Riffaterre) 역시 비유가 시의 기본 구조원리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힐은 모든 문학이 문체적 구조를 만들

고 많은 문장들에 대해 문체 관계를 가지지만 시는 특히 문체적 구조를 발전시키고 강조한다고 말한다. 즉 시인은 의미를 변화시키고 추가하는 문체적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언어학적 의미를 초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부만 고려한다면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의미를 시 전체를 통해 나타낸다는 것이다.

힐은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문체적 장치 중 특히 '유추'에 주목한다. 유추는 시에 문체적 통일감을 주고 일상적 문장의 의미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시를 의미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의 재료는 물론 언어이지만 시의 언어는 일상 언어와 다르다는 점, 즉 '언어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의 성공은 유추의 효과적인 발견에 의해 가능하다고 그는 역설한다(Hill 385-6).

리파테르는 일상언어의 의미단위가 단어나 문장인데 비해 시의 의미단위는 텍스트라고 말하면서, 시는 비문법성에 의해 일상언어와 구분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비문법성의 요인 중 하나로 은유나 환유와 같은 전이현상을 들면서, 이러한 의미전이가 독자들로 하여금 특정 표현을 지시적으로 읽지 못하게 가로막음으로써 간접적 의미를 찾도록 유도하는 간접화 지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의미전이가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일상언어로 읽으면 뜻이 통하지 않지만 다른 체계에서는 뜻이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간접화 도구들은 그것과 관련, 지시적으로 뜻이 통했던 다른 단어나 문장들의 의미까지도 변형시켜 지시적 독서를 넘어서는 2차 독서를 통해 텍스트를 유기적 전체로 재구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1989, 13-40).

2. 「별헤는 밤」의 비유구조

「별헤는 밤」은 운동주의 대표적인 시 중의 하나이다. 운동주에 대한 언급만큼이나 많은 언급이 이 시에 대해서도 있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주로 고향에 대한 시인의 그리움과 향수, 그리고 막연한 가을 밤의 감상을 그린 시라는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또 시대적인 문제와 관련짓는 경우에도 막연하게 떳떳하게 행동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을 노래한 시라는 평가가 고작이었다. 이러한 평가는 대체로 「별헤는 밤」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별헤는 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시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시대적인 고민, 특히 일제 말기의 창씨개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운동주는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인이다. 운동주

가 본격적으로 시를 썼던 시기는 일제 말기 황국신민화 정책이 펼쳐지던 시기였다. 1930년대 초 일제는 문화 정책을 수정하여 병참기지화 정책을 수행해나간다. 병참기지화정책이란 문자 그대로 한반도를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자는 것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적 자원을 한반도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30년대 우리 민족은 극도의 궁핍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30년대 말에 이르러 일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황국신민화 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황국신민화 정책은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우리 민족을 일본 신민으로 편입시켜 수탈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일제는 이를 위해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키고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등 모욕적인 정책을 수행해 나아갔다.

「별헤는 밤」의 핵심적인 문체적 장치는 이 시의 마지막 연에 등장하는 비유이다. 이 비유는 목하 시의 의미를 창씨개명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문제와 관련시키고 시 전체를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뇌와 연결시켜주는 고리이기도 하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오,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

이들의 이름과 꽤, 경, 옥 이런 이국소녀들의 이름과 별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푸랑시쓰 · 째” “라이넬 · 마리아 ·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우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게외다.

편의상 리파테르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1, 2차 독서과정을 따르기로 한다. 「별 헤는 밤」의 1차독서는 지시적 의미를 따라 진행된다. 1연에서 시인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첫 번째 구절은 직선적인 해석을 통해서 무리없이 읽혀질 수 있다. 이 시가 씌어진 시기가 11월 24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11월 말 날씨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낙엽이 다 지고 난 뒤 늦가을의 투명한 하늘을 연상할 수 있지만 별다른 복선적 의미 없이 이 시를 읽어나갈 수 있다.

2연 역시 마찬가지다. 시인은 겨울로 접어드는 투명한 가을 하늘 속에서 손에 잡힐 듯 가깝고 크게 느껴지는 별들을 보면서 마치 가을 하늘 속의 별들을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젖게 된다.

3연에서 시인은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가을 속의 별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 이유가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고 아직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 4, 5연에서도 우리는 별다른 복선적 의미를 만나지 못한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하는 동요처럼 우리는 시인이 별 하나마다 추억과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등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되새겨 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6연에서 시인은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 별이 이슬히 멀 듯이, /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라고 하여 지금까지 나열된 사람과 사물들이 현재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직선적 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걸림돌들은 다음 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시인은 7연에서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흠으로 덮어버렸다”고 말한다. 무엇인지 그림다고 해서 이름자를 썼다가 흠으로 덮어 버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독자들은 무의식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연에서 비문법성은 더 증폭된다. 이름을 썼다가 덮어버린 시인은 이번에는 밤을 새워 우는 별레가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직선적 해석을 거부하는 부분이다. 별레가 이름을 슬퍼할 수는 없다. 별레와 같은 누가 이름을 슬퍼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별레와 이 시의 화자는 비유관계로 결합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이 시에서 이름을 슬퍼하며 우는 별레는 다름 아닌 이 시의 화자, 윤동주 자신인 것이다. 별레가 우는 것처럼 화자는 이름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윤동주는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음 연에서 해결된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게외다.

8연에서 비문법성은 독자들의 직선적 판독을 불가능할 정도로 더욱 증폭된다. 시인은 “무덤 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우에도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게외다”라는 직유를 사용하고 있다. 지시적인 의미에서 무덤이고 언덕은 언덕일 뿐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무덤과 언덕 두 단어는 지시적 의미를 초월하여 등가관계로 결합되고 있다. 이것은 리파테르의 용어로 분명히 비문법성 중 하나, 즉 의미론적 전이에 해당된다.¹⁾ 7연의 별레를 지시적인 의미로 읽은 독자

1) 리파테르의 이론체계에서 “비문법성”이라는 용어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들까지도 이 부분은 축어적 해석으로 지나칠 수 없게 된다. 이 비유를 풀기 위해 우리는 무덤이 X_1 에 대한 관계는 언덕이 X_2 에 대한 관계와 같다는 유추 도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시 속에 주어진 정보에 따라 우리는 X_2 가 이름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위의 도식은 무덤 : X_1 = 언덕 : 이름자로 바뀌며 우리는 X_1 이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 즉 주검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비례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덤이 언덕에 대한 것처럼 주검과 이름자도 대응관계에 있어야 한다. 두 단어가 대응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검과 이름은 둘다 죽음이라는 공통성분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이 시의 이름자는 죽은 이름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를 쓸 당시 윤동주가 죽지 않았고 분명히 시 속에서 “내 이름자”를 썼다가 흠으로 덮어버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왜 죽은 이름인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윤동주가 시를 쓰던 시기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윤동주가 이 시를 쓴 시기는 1941년 11월 24일로 밝혀져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펼쳐지던 시기이다. 일제는 나라를 빼앗은 데서 나아가 민족성마저 빼앗기 위해 우리 민족에게 신사참배,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조선어교육 및 사용을 금지시키는 한편으로 징용, 징병제도 등을 실시했다. 그 중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치욕적인 것이 창씨개명이었다. 일제는 1939년 11월 30일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창씨개명령)을 발표하고 1940년 2월 11일을 시행개시일로 공포한다. 창씨개명제가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는 7개월 후인 9월 20일까지 우리 민족의 79.3%가 창씨개명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유달리 민족의식이 강하고 조상과 가문을 존중하는 우리 민족이 불과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0% 가까이 모욕적인 창씨개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창씨개명에 쏟았던 일제의 정치적 비중이 얼마나 컸고 그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해준다(송우혜 1998, 211).

윤동주는 이 시를 쓰던 시기에 연희전문 졸업반이었고 일본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상황에서 그는 일본 유학을 위해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윤동주는 1942년 1월 29일 평소동주(平沼東柱)라고 창씨개명한 이름을 연희전문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우혜 1998, 253). 「별헤는 밤」을 쓰던 시기에 윤동주가 이미 유학을 준비 중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별헤는 밤」의 흠으로 덮어버린 이름은 윤동주 자신의 우리말 이름이었

커다란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이를 단순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첨언해 둔다.

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모욕적인 창씨개명을 받아들인 데에는 그것을 감수하고 유학을 가야 할 나름대로의 더 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유재천 1990, 83 참조). 그러나 본의 아니게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할 때 그 수치심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을 것을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운동주로 하여금 이 시를 쓰게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선적 독서과정에서 「별헤는 밤」의 전반부는 아무런 복선적인 의미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직유는 지시적인 의미를 넘어 이 구절을 식민지 시대 창씨개명과 관련시켜 해석하게 하고 시 전체를 운동주가 살던 시대적 상황 내지 개인적 상황, 즉 창씨개명과 그로 인한 수치심과 관련하여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지시적 차원을 넘어선 2차적 독서과정은 이 비유와 앞서 지시적 의미로 읽은 부분들을 관련시켜 전체로서의 텍스트를 재구성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시에 나타나는 계절마저도 단순한 계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시에서 시대적인 상황은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이라는 구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죽음의 계절인 겨울로 설정되어 있다. 비유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2차 독서에서 겨울은 식민지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바뀐다. 겨울이 모든 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듯이, 식민지 상황은 나의 별의 모든 것을 박탈하고 죽음의 세계로 만든다. 겨울로 인해 상실된 것들은 추억, 사랑, 쓸쓸함, 시, 어머니, 어릴 적 동무들, 그리고 이 시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이름자이다. 이들은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빼앗기고 상실된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계열체를 형성하며 그 기능적 의미를 같이 한다.

별은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별은 옛날처럼 빛나고 있지만 그 별 아래 존재했던 밝고 자유스러운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지상의 “나의 별”과 하늘의 “별”,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의 기본적인 대립이 성립되며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은 단순한 감상의 차원을 넘어 당위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세계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의 상실은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

식민지의 모욕적인 삶과 수치는 화자로 하여금 별을 매개로 상실된 것들을 하나 하나 떠올려 보고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는 행위로 나가게 한다. 옛날에는 그 별 밑에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삶이 존재했는데 그것들은 지금은 없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 이름자까지 빼앗기고 말았다. 여기서 화자가 흙으로 썼다가 덮어 버린 이름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창씨개명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이름을 말한다. 그것은 “내 이름자를 써 보고”, “이름자 묻힌 언덕”, “부끄러운 이

름” 등 이름에 대한 특별한 반복과 마지막 연의 “무덤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우에도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 비유는 이름의 죽음, 즉 우리 말 이름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치욕의 이 시대가 무덤과 같은 죽음의 시대임을 드러내주고 있다. 풀이 자랑스럽다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풀이 자랑스럽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랑스런 이유는 빼앗긴 이름자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창씨개명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 외에도 이름을 빼앗긴 삶을 별레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름이란 존재의 상징이다. 이름의 상실은 인간으로서의 죽음, 곧 동물적인 수치스러운 삶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운동주의 동경 유학 직전에 씌어진 이 시는 운동주의 동경유학을 위한 창씨개명과 그 수치감을 보여주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강압적인 식민지 현실과 그로 인해 빼앗긴 자유스러운 공간으로서의 나의 별의 대립을 통해 되찾아야 할 이상적인 곳으로서의 별과 고향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특히 마지막 연은 계절의 순환과 더불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죽었던 풀들이 되살아나듯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국권이 회복될 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이름자도 자랑스럽게 되살아날 수 있다는 국권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염원을 보여주고 있다.

운동주 시에서 별과 고향,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은 식민지 현실과 대립되는 상실된 민족적 터전과 그곳에서의 자유스러운 삶을 의미한다. 그것은 현재는 상실되었지만 과거에는 존재했고 앞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이상적인 곳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운동주 자신의 고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빼앗긴 조국을 의미하며 별과 아름다운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은 국권회복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3. 맺음말

운동주는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지금까지 운동주 연구는 저항시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인상비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비유구조를 통해 볼 때, 「별해는 밤」은 막연한 감상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시가 아니라 창씨개명과 관련된 운동주의 식민지 현실에 대

한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에서 비유는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원리이다. 그것은 시 텍스트에 다른 간접적 의미를 끌어들이므로써 텍스트 전체를 그것과 관련 재구성하고 다른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그것과 관련 다른 의미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연에 나타나는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 무덤 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도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게외다”라는 직유는 이 시에 나오는 이름이 죽은 이름, 즉 창씨개명으로 못쓰게 된 우리말 이름을 의미하며 창씨개명과 관련된 당시의 개인적, 역사적 사실이 이 시를 쓰게 만든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비유는 시 전반부의 단순한 그리움과 동경의 대상으로 보였던 부분들의 의미를 수정하여,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지금은 상실된, 그러나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당위적 세계를 의미하도록 만들어준다.

「별헤는 밤」은 창씨개명으로 인한 민족적 수치심과 이름자까지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이름을 되찾을 날에 대한 시인의 간절한 믿음을 담고 있다. 우리말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없었던 일제 말 강압적인 시기에 창씨개명을 소재로 한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운동주의 순결한 양심과 함께 「별헤는 밤」을 문학사적으로 더욱 빛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 인용문헌

리파테르, 미케엘. 『시의 기호학』. 유재천 역. 서울: 민음사, 1989.

송우혜. 『운동주 평전』. 서울: 세계사, 1998.

야콥슨, 로만.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편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9.

유재천. 「운동주론」. 『배달말』(배달말학회) 15 (1990).

Hill, Archibald A. “Poetry and Stylistics.” *Essays on the Language of Literature*. Ed. Seymour Chatman & Samuel R. Levin. Boston: Houghton Mifflin, 1967.

[Abstract]

The Figurative Structure of “One Night, Counting the Stars”

Jae Cheon Yo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the figurative structure of Tongjoo Yoon’s “One Night, Counting the Stars” reflects the poet’s anguish over the colonial reality of Korea in the later stages of the Japanese occupation, especially regarding the forced adoption of Japanese names in 1939. The poet Yoon himself registered at Yonhi College with an adopted Japanese name. In the second half of the poem, the speaker alludes to this historical fact when he confesses that “On a hill lit by myriads of stars / I spelled my name / And covered it over with dirt,” and that he “laments [his] shameful name.” In the simile of the last stanza, the speaker continues to allude to the “buried” name: “But, past winter, come spring to my star, / As green grass sprouts on a grave mound, / So will it spread with pride / On the hill where my name is buried.” The longing and the yearning, expressed so simply and in child-like manner in the first half of the poem, become in the second half an urgent need for something that should have been but cannot be, and yet will be in the future—for a world that should be, now lost but to be regained. The poem contains the poet’s earnest belief that the inherited Korean names that were then so shamefully taken away will one day be recovered.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ny other work written in Korean (despite the most suppressive measures against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that also alludes to the adoption of Japanese names. In this respect, “One Night, Counting the Stars” has a unique value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